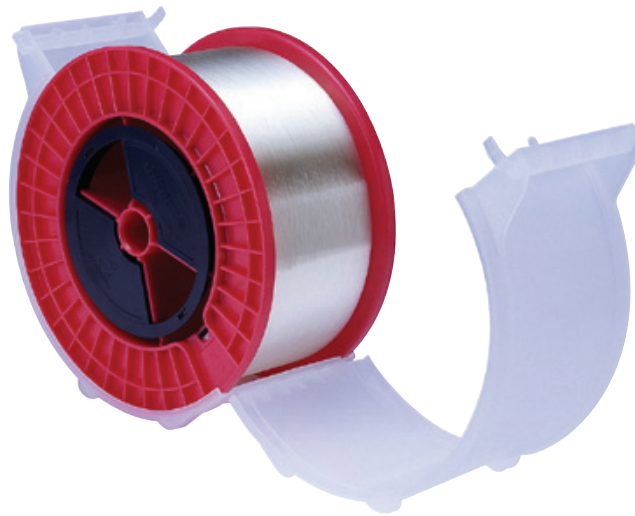


## 국내 최초! 극저손실 광섬유 ‘AW-파인’



광통신케이블 전문기업인 대한광통신은 국내 최초로 전 파장대역에서 전송 손실률을 최저로 낮춘 극저손실 광섬유를 출시했다.

극저손실 광섬유는 국내 처음이자, 세계 최대 광섬유업체인 미국 코닝(Corning)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것이다.

AW-파인(AW-Fine)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광섬유는 기존 광섬유의 기술적 한계로 여겨진 단파장 대역에서 빛의 산란으로 인한 손실 및 수분에

따른 손실, 장파장 대역에서의 구부림 손실 등을 동시에 낮춘 제품이다. 또한 기존 광섬유보다 10% 이상 향상된 전송거리와 전송품질을 보장한다.

기존 전송망의 무수광섬유와 동일하게 광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이미 깔려 있는 광케이블과 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. 도시통신망(Metro망), 광가입자망(FTTH) 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에도 응용이 가능하다. 또한 기존 광섬유에 비해 광케이블을 가볍고 기밀하게 할 수 있어 케이블 제조비용 및 망 구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. 